

##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이 병 철\*

(인천대학교)

송 다 영\*\*

(인천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입학 포기, 중도포기 등과 같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요인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적응과정에 대한 다면적 차원의 분석을 통해서,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에서 일반 재학생과 다른 독특한 경험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둘째, 주변이나 사회로부터의 반응에 대한 청소년의 즉자적 대응과 적응과정을 분석하며,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적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결론에서는 다문화가족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제어: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족, 학교생활적응, 근거이론, 부적응

### 1. 서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경험이 매우 다양해서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늘고 있다(금명자·이영선·김무리·손재환·이현숙, 2006).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에 재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결혼이주 여성이 자신의 본국,

\* 주저자

\*\* 교신저자

초혼에서 얻은 자녀들인 '중도입국청소년'이다(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아직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단위 실태 조사에서 대략 3,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해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 2009).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국적 취득 후 현지 자녀를 입양절차를 통해 입국시키면서 근래에 들어 중도입국청소년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증할 추세이다(설동훈·김윤희·김현미·윤홍식·이혜경·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얻은 소위 전형적으로 일컬어지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비하여 이중, 삼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배제와 이탈에 빠질 개인성이 높다. 즉 이들은 가정적으로 원부모의 이혼과 타국에서의 재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되는 심리적 고통과 후속적 문제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금명자 외, 2006).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은 본국과 한국간 문화의 상이성에 따라 가치관 혼란과 충돌 속에 놓이기 쉽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한국어 학습 등의 사전준비 없이 입국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대개 본국에서 어머니가 결혼하기 위해 떠난 후, 외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1년 정도 홀로 집안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은 오랜 기간 교육공백을 경험한다. 언어부족과 사회 자체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학습문제 이외에도,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른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 눈동자 색, 머리스타일, 말투 등이 이들의 소외와 배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김현주, 2007).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조정 기제가 발달하지 않아 소외나 배제 경험이 심리적 공포나 충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입학 자체의 포기, 중도포기, 한국사회·한국인에 대한 불안감 혹은 적대감, 외부와의 관계 단절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중도입국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 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달리 사회적 보호를 제공받고 사회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김미선, 2010; 오성배, 2007). 한국 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sup>1)</sup> 및 다문화가족지원법<sup>2)</sup>의 지원대상이 되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제재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학업이 생애주기상 중요한 과업 과제인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재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초기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거나 한국에 KSL(Korea as a Second Language)과정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정, 사회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언어나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축된 정도이며,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기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한다.

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한다.

관은 거의 없다(김미선, 2010; 조영달·윤희원·박상철·최인영, 2006). 자발적 선택이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 또는 사회통합차원으로 접근이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하나, 본 연구의 중도입국청소년은 어머니의 결혼이주로 한국에 들어 온 사례로 한정하여 살펴본다.<sup>3)</sup>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심층인터뷰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적응과정을 강화하고,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에서 일반 재학생과 다른 독특한 경험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둘째,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일차적 대응과 적응과정을 분석하며,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적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재적 도움이나 방안이 무엇인가를 추적해보았다. 결론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였다.

## 2. 이론적 논의

### 1) 선행연구 검토

어머니의 재혼으로 타국에 이주하여 새로운 아버지와 살게 된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초점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곽금주, 2008; 김경자, 2008; 배은주, 2006; 이해경, 2005; 한정애, 2009). 다만 부모의 이민이나 타국으로의 입양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역에 이주, 정착하게 된 청소년의 사회적응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국외연구들은 청소년의 이주, 문화습득, 적응의 단계별 정착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며(Berry, 1997), 다문화가족의 출신국가별, 계층별 적응방식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다층적 속성(Zhou, 1997)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또한 두

3)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 거주했었으나 재혼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의 학령기 자녀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명명했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이라 함은 ①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 ② 국제결혼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생활하다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④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 ⑤ 새터민이 외국인과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 다양하다. 본 연구의 중도입국청소년은 가장 흔한 경우인 ①항에 한정된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시기와 중,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 시기의 대상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생애주기 발달단계에 따른 엄격한 분류방식으로 분류하면 중도입국아동,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전체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통칭하였다. '아동'은 사회통념상 보호나 보육의 범주안에 칭해지는 일반적 관례가 있는 반면, '청소년'은 해당 시기 대상자의 학습이나 학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문화간 이질성으로 인해 새로 이주해 온 국가의 문화에 적응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어려움, 정신적 문제는 물론 극복의 실제들이 제시되고 있다(Gil, Vega and Dimas, 1994; Hovey and Magana, 2000; Ward, Bochner and Furnham, 2001; Suarez-Orozco and Suarez-Orozco, 2002).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시하기도 한다(Michell and Salbury, 1996).

국내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일반학생, 혹은 다른 가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연구기조를 깔고 있다(금명자 외, 2006; 신지혜, 2008; 한정애, 2009). 양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개인적, 가정적, 학교생활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이영주, 2007; 장덕희·신효선, 2010). 개인관련 요인에서는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으로, 완벽주의 경향이나, 실수나 실패에 대한 지각,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학습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 관련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요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2008; 이영주, 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중학생의 학교적응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일수록 학교교사적응, 학교생활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환경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유형은 학교수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조영달 외, 2006; 최은미, 2007)에서는 학습자가 대인관계(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학교안의 질서나 규칙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을 적응으로 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학교내 친구나 교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거나, 숙제나 과제물, 등학교 시간과 같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으면 적응과 관련된 갈등이 감소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의 기반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도입국청소년은 비자발적 이주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채 학교에 입학해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결혼이주 후 출산, 양육과정을 가진 다른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측면을 복합적으로 엮어내는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현실적 여건상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측면에서도 대상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의 경험과 적응과정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방법론 접근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Padgett, 1998).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이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 2) 근거이론(grounded theory approach)과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에 대해 행동변이를 설명하고 실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동 범위의 묘사를 할 수 있다(Strauss and Corbin, 1998; 신경림·김미영, 2003). 즉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주체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근거이론은 자료로부터 나온 각각의 세부적 논의를 경험에 근거한 일련의 개념으로 조합한 것으로 완전한 추론을 통해 도출된 이론보다 더 현실을 설명해내는 강점이 있다.

근거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과정은 사건과 사건을 비교하고 사건과 범주, 범주와 범주, 개념과 개념을 비교하여 사건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비교하여 범주나 개념의 기본적인 속성을 정의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구조, 원인, 맥락, 차원, 결과 등 다양한 범주와의 관계를 찾음으로써 생성된 개념이나 범주를 확정한다. 인터뷰, 현장노트,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coding)이라는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단계로 자료로부터 이론이 정립되는 핵심과정이다. 코딩은 3단계를 통해 진행되는데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개방코딩(open coding)은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다. 자료내의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심생각인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론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본단위로서의 개념, 그리고 현상을 대표하는 범주(categories)를 발견하고 창출하는 과정이다. 2차 코딩은 축 코딩(axial coding) 단계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paradigm)을 구성하고, 구조를 만들며, 과정(process)을 발견한다. 패러다임이란 분석자가 구조를 과정과 통합시키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분석적 도구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consequences)로 축약된다. 3차 코딩은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축 코딩에서 나타난 범주와 패러다임 모델을 통합하는 “이야기 줄거리”를 확인하고 “핵심범주”(core category), 혹은 “조건적 명제”(proposition)를 발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핵심범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단어로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론을 생성시키는 단계로 나아간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이나 경험은 이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연구 분야이고, 두 개의 문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과 그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연구자간 관계를 고려할 때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을 바탕으로 여러 단계의 구조화 작업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편견없이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이론(신경림·김미영, 2003)은 유용한 분석적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이론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 특히 어머니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문화와 학교생활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중도입국청

소년들의 경험을 최대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 없이 드러내고자 한다. 다차원적 관찰, 분석, 범주화, 재범주화를 거쳐 가는 근거이론은 실질적 도구가 된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이다. 아버지는 한국인이며 어머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에서 이주하여 재혼한 외국인 여성이다. 연구 대상자는 다문화센터와 종교단체를 통하여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카자흐스탄 1명(12세, 여), 러시아 4명(12세 남, 12세 여, 10세 여, 8세 남), 중국 1명(13세 여), 파키스탄 1명(10세 남) 등 총 7명이다. 심층면접을 보완하기 위해 3명의 부모를 추가로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경우이며, 한국말이 서툰 경우에는 전문통역자를 두었다.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인터뷰, 선생님 상담일지, 해당 학생 기록물 등으로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1단계는 연구질문과 주제 그리고 언어적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민감성 개발을 위해 논문, 소설, 에세이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다문화가족 사회관계 및 문화교류에 민감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센터, 평생학습관, NGO 단체의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센터의 실무자들과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문화가족 자체는 물론 다문화가족 자녀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실태를 가늠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상담일지 작성을 위하여 연구의 사전점검(pretest) 인터뷰 단계로,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로 선정된 2명의 참여자에 대한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가지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내용을 토대로 이론적 표본추출을 위한 본 연구 질문지를 형성하고 8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선정된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분석작업이 진행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한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이론 개발의 기반이 되는 개념형성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다시 두 번에 나누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심층면접에서는 초기 면접에서 부족했던 내용들에 대한 보완뿐만 아니라 시기적 추이에 따른 변화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적, 가정적 요인 이외에도 지역사회나 사회적 요인이 조사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하였다(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2010). 연구자는 중도입국청소년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민감성 유지를 위하여 본격적인 인터뷰와 그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국회에서 주관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 국제결혼소개소 실태, 법무부에서 주관한 동반·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이주노동자 실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포럼에 참석하였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한국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에 참관수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참여나 참관수업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관찰과 경험 사이의 일정한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은 주로 중도입국청소년과의 심층면접에 기반을 두었으나, 이와 함께 교사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담일지, 교사나 부모들이 제공하는 참여자의 학습에 관련된 정보와 학습결과, 문제 행동 시 보였던 양상과 해결방법을 기록한 성장일지 등을 부가적으로 이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면접에서부터 구조화된 면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주로 비지시적,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Padgett, 1998). 반구조화 면접을 통해 일정 질문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인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사전조사(pre-test) 면접이후 녹취를 한 후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상담사와 함께 내용을 읽어보고 분석하면서 인터뷰 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로서 조사대상자에게 인격적으로 질문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지도받았으며, 정보제공자인 학생의 인지적 이해수준에 맞추어 애매모호한 질문이나 이중질문은 피하였다. 사전조사에 맞춰 학년별로 맞추어진 질문방식을 보완하였으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통역사의 통역 지원을 받았다. 반구조화면접 질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면접 장소는 교실, 특별활동실, 상담실, 체험학습실 등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개별적으로 심층면접한 내용을 전사(transcription)하여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느낌이나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표정과 제스처에 대한 표기도 함께 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는 1단계인 수집과 2단계 분류, 그리고 3단계 분석 작업이 거의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신경림·조명호·양진향, 2004).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례와 사례를 비교하고, 유사 사건과 사건을 살펴보면서 개념과 범주화를 선정해 보고, 핵심범주와 유형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나갔다.

## 4. 연구결과

### 1) 개방코딩 분석: 근거자료 범주화

개방코딩(open coding) 과정은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속성(property)과 차원(dimension)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개별사건들과 그 밖의 현상들에 붙여진 개념적 호칭

을 거쳐 유사하거나 의미상 비슷한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특정한 속성을 구분하고 범주(category)와 하위범주를 구성한다. 본 연구는 범주와 속성, 차원을 구분하는 분석을 거쳐 97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한 후 경험과 상황을 범주, 하위범주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 및 범주화

패러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억울함	황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붓아버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입국</li> <li>• 이중문화 때문에 각각 다른 문화 이해</li> </ul>	
		소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우관계에서 왕따</li> <li>• 본국에 있을 때 친구가 많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li> </ul>	
		분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 대한 막연한 분노</li> <li>• 유치원 선생님의 체벌로 인한 마음의 상처</li> <li>• 외모에 대한 차별</li> <li>• 아빠가 있는 줄 몰랐어요</li> </ul>	
		이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배경이 틀리고 낮설</li> <li>• 외모에 대한 지나친 시선</li> </ul>	
중심현상	주눅들음	학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 흥미 부족</li> <li>• 수업내용 이해하기 어렵다(언어)</li> <li>• 학습의욕 저하</li> </ul>	
		규칙 이해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칙이 있는지 잘 모른다</li> <li>•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li> </ul>	
		원만하지 않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친구, 교사)</li> <li>• 특정단어(야야)를 알게 되면서 불쾌감 생김</li> <li>• 과제물 내용 잘 모름</li> </ul>	
		따돌림(왕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 친구가 없다</li> <li>• 친밀감에 한계</li> <li>• 일방적인 왕따</li> </ul>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담</li> <li>• 입국 전 사전교육이 없어서 한국이 두렵다</li> </ul>	
		빈곤한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li> </ul>	
맥락적 조건	사회적 편견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모 차별 때문에 본인 심기 불편</li> <li>• 자녀의 외모 차별 때문에 부모 심기 불편</li> </ul>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소외감</li> <li>•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li> </ul>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림으로 바보가 된 느낌</li> <li>•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li> <li>• 왕따 당함</li> </ul>	
	문화적 인식의 차이	자아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모의 차이</li> </ul>	
		가정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붓아버지 자체 거부감</li> <li>• 다양한 가족으로 인한 혼란</li> <li>• 이복형제 갈등</li> </ul>	
	돌출상황	행동	사회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하고 불안함</li> <li>• 차별적인 관계</li> <li>• 모국을 그리워 함</li> </ul>
			학교친구 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말</li> <li>• 공격성</li> <li>• 신체화 증상</li> </ul>
중재적	지지적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조건적 지지자</li> </ul>	

패러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조건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마에 대한 양가감정</li> <li>•부모의 양육방법 차이</li> <li>•엄마는 지지적 위치</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님 같은 양육자 모습</li> <li>•대화상대자가 아닌 싫은 존재</li> <li>•대화의 상대자</li> <li>•편애의 대상자</li> <li>•무뚝뚝한 존재</li> </ul>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적으로 좋은 친근감을 주는 친구</li> <li>•양가감정이 존재</li> <li>•같은 나라 친구끼리 의지</li> </ul>	
	개인내적 자원	자기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감 획득</li> <li>•자신에 대한 재발견</li> </ul>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준비물 준비 혼자서</li> <li>•학교규칙 지키기</li> <li>•한국어 능력향상 노력</li> <li>•학습부진에 대한 노력</li> <li>•관계개선 시도(친구 사귀기)</li> <li>•다양한 꿈</li> <li>•아빠에게 도움 청함</li> <li>•보조교육제도 활용(과외)</li> </ul>	
	문화 정체성	모국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국문화 동경</li> <li>•모국문화에 대하여 모르는 것에 기분 나쁨</li> <li>•모국문화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음</li> </ul>	
		한국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응하고 받아들임</li> </ul>	
	전략 (작용/상호작용)	회피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붓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li> </ul>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단절</li> </ul>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함</li> </ul>
현실적시		인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임</li> <li>•부모가 가정교육 방법 상이하나 이해</li> </ul>	
		버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치 않은 학생지도 방법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수용</li> <li>•교칙을 알면서도 미준수</li> </ul>	
		자기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폭발</li> <li>•원망하기</li> </ul>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해결방법 나름대로 터득(개인 신앙)</li> </ul>	
노력		학습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부진에 대한 노력</li> <li>•좋아하는 과목 발견(사회)</li> <li>•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함</li> </ul>	
		관계 개선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동안만 왕따였다</li> <li>•친구와의 문제 직접해결</li> </ul>	
결과		적응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이름으로 전국경연대회에서 1등</li> <li>•학교생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음</li> </ul>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임</li> <li>•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인정</li> </ul>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에 대하여 다양한 꿈을 소유</li> <li>•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li> </ul>	
	혼돈	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을 인정하며 태도변화 시도포기</li> <li>•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향상, 노력부족</li> </ul>	
		정체감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상존</li> <li>•국적 때문에 오는 정체감에 대한 혼란 상존</li> </ul>	
	부적응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지 않음</li> <li>•학교가기 싫어함</li> </ul>	
		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젠가 모국으로 돌아감</li> </ul>	

### (1) 억울함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외모가 다른 존재로서 보편적 이질감을 일상생활에서 느낀다. 또한 의붓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가정생활에서 왜,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황당함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무력감을 가진 채 생활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게 자신이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새로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된 아동은 자신이 친부모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상처를 지닌 채 소외감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황당함, 소외감, 분노함, 이질감, 부담감의 추상적 개념으로 명명한 후 이것을 억울함으로 범주화 하였다.

### (2) 주눅 들음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여성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어 또래에 비해 국어에 대한 이해, 말하기 수준이 떨어지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자녀보다도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다. 그로 인해 학교생활에 더욱 소극적으로 된다. 한국어 이해가 안 되는 부모에게 과제물, 준비물 등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숙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으로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또 차별과 놀림의 기억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주눅 들음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눅 들음의 범주에는 하위영역으로 학업환경, 규칙에 익숙하지 않음, 원만하지 않은 의사소통, 따돌림, 두려움, 빈곤한 가정환경이 속한다.

### (3) 사회적 편견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으로 국제결혼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반적으로 사회전반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고 있으며, 얼굴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하게 드러나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무시나 차별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서 온 중도입국청소년은 심리적 소외와 불편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회적 편견의 하위범주는 차별, 소외, 무시, 고립시킴이 포함된다.

### (4) 문화적 인식의 차이

자신과 부모에 대한 정체성 혼란, 자신과 피부색과 문화배경이 다른 아버지에 대한 혼란, 이복형제 갈등, 새로 적응하게 되는 사회에 대한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문화적 인식의 차이는 자아인식, 가정에 대한 인식, 사회인식이 하위범주로 포함되었다.

### (5) 돌출 상황

황당함, 소외감, 분노함, 이질감 등의 감정이 억울함으로 내재되어 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적극적 방식 혹은 자신의 혼란을 감추려는 방어기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돌출상황은 학교친구 구타, 거짓말, 공격성, 신체화 증상, 수동적 공격자세 등 하위범주로 구분된다.

**(6) 지지적 관계**

참여자는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로 가족, 교사, 친구를 언급하였다. 가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지지자이며 의붓아버지(때론 엄마)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이 존재하였다. 교사는 본인이 이해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조력자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소홀하고 차별받았다는 경험이 있는 경우는 지지적 관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친구는 심리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도, 양가감정을 내재한 관계로도 인식하였다. 지지적 관계의 하위범주는 가족, 교사, 친구로 구분하였다.

**(7) 개인 내적 자원**

학교적응에는 개인의 내적변인에 의한 차이도 존재한다. 즉 개인의 내적 자원이 뒷받침되면 학교적응을 잘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대개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학습효과가 보이는 과목에는 자신감이 붙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사례가 있었다. 개인내적 자원은 적극성과 자신감으로 하위범주화하였다.

**(8) 문화 정체성**

중도입국청소년은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차이를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 나라와 아버지 나라, 각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어머니의 문화와 한국문화로 분류하였다.

**(9) 회피**

중도입국청소년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척 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혼란스러운 반응에 적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피의 하위범주에는 부정, 단절, 위축이 포함된다.

**(10) 현실 직시**

중도입국청소년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방법을 찾아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기도 한다. 현실 직시의 하위범주는 인내하기, 버티기, 자기표현이 포함된다.

**(11) 노력**

왕따같이 무시당하거나 놀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학습부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므로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하위범주에는 학습향상, 관계개선 시도가 있다.

**(12) 적응**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인정하게 되는 자신감 회복은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위범주에는 성취, 수용, 희망이 포함된다.

**(13) 혼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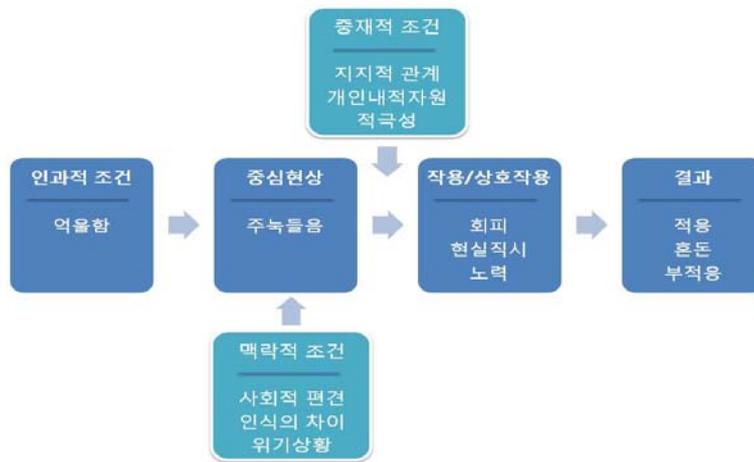
자신감 결여, 정체성 혼란, 문화적 혼란이 내면에 존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혼돈이 지속되는 형태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평정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혼돈의 하위범주는 체념과 정체감 혼란이다.

**(14) 부적응**

현재의 어려움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 등으로 모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산다. 부적응의 하위영역은 두려움, 불확실성 등이다.

**2) 축코딩**

축 코딩은 하나의 범주에 하위범주들을 관련짓는 과정이다. 그것은 몇 단계를 거친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방식을 동시에 가지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것은 개방코딩에서처럼 비교법과 질문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축 코딩의 절차에 더욱 초점이 모아지고 패러다임 모델을 가지고 범주들에 근접하고 범주들을 발견하는 쪽으로 절차가 진행된다(Strauss and Corbin,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분석되었던 자료들을 재조합하여 현상에 대해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하여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고 범주들이 어떻게 서로 교차되고 연결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축 코딩의 분석적 도구는 패러다임 모형이다. 패러다임 모형은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로 구성된다.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전략(작용/상호작용), 결과의 관련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원인이 되는 일이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억울함’ 중심현상인 위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억울함의 속성은 정도와 연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는 심함과 약함의 차원으로, 연속성은 지속적, 일시적 차원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2>와 같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억울함	정 도	심함 - 약함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2) 중심현상(phenomenon)

중심현상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고 다스려지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과정에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주눅 들음’으로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주눅 들음의 속성은 수준과 연속성으로 ‘주눅 들음’의 차원은 높고, 낮음과 지속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표 3〉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주눅 들음	수 준	높음 - 낮음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 (3) 맥락적 조건(context)

맥락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 범주는 사회적 편견, 문화적 인식의 차이, 돌출상황이 중심현상인 '주눅 들음'에 반응하는 전후관계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와 같다.

〈표 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사회적 편견	정 도	많음 - 적음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문화인식의 차이	정 도	많음 - 적음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돌출 상황	정 도	많음-적음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 맥락 내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적 관계, 개인내적 자원, 적극성이 중심현상인 주눅 들음의 정도를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지지적 관계	강 도	강함 - 약함
	정 도	많음 - 적음
개인 내적 자원	수 준	높음 - 낮음
	정 도	강함 - 약함
적극성	강 도	강함 - 약함
	정 도	많음 - 적음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은 참여자가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는 중심현상을 다루는 전술이다. 마주치는 상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취하는 전략으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주눅 들음'을 다루는 것으로 회피, 현실직시, 노력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작용/상호작용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회 피	형 태	전체적 - 부분적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현실직시	본 질	긍정적 - 부정적
노 령	수 준	높음 - 낮음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6)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주눅 들음'이라는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 적응, 혼돈, 부적응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속성은 적응, 혼돈, 부적응의 수준이나 정도 및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적 응	수 준	높음 - 낮음
혼 돈	정 도	많음 - 적음
	연속성	지속적 - 일시적
부적응	형 태	전체적 - 부분적

**3)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하고 처리에 관련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

구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은 '구성과 탐색의 단계(혼란과 두려움)', '발견과 이해의 단계(시도해봄)', '참여와 전환의 단계(자신의 입장 수용)', '지속 가능성의 단계(어울림)'로 나타났다.

### (1) 구성과 탐색의 단계

구성과 탐색의 단계(혼란과 두려움)는 참여자들이 한국에 이주했을 때 가정에서 의붓아버지를 만나고 가정을 떠나 새로운 사회인 학교에 입학하여 나타나는 단계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다문화가족 자녀와 달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문화를 접하고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억울함과 향당함, 분노, 이질감을 안고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가정내 구성원과는 소통이 이루어진 후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놀림과 차별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는데 비하여,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가정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학교생활에서 외모의 차이, 왕따, 의사소통의 어려움, 낯섦 등으로 말이 거칠어지고 놀러 나가기를 싫어하며 말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회피, 현실직시, 노력이 주로 적용된다. 이주한 어머니를 따라온 참여자는 환경변화에 대한 충격까지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홀로 해결할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와 환경에 분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위축감을 가져오게 하였다. 맥락적 조건에서 사회적 편견, 문화의 차이, 돌출행동을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면 안정감을 잃고 심리적 부적응 상태가 되고 두려움이 된다. 반면 중재적 조건에서 지지적 관계와 개인내적 자원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회피현상을 잘 나타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2) 발견과 이해의 단계

발견하고 이해의(시도해봄) 단계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교의 규칙과 학습과정,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을 익히는 단계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친밀감을 형성하며 다른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며 학습향상을 위해 교사에게도 질문을 한다. 이는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라는 시도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외모와 한국어 능력 부족, 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 되어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적극성이 결여된다. 중재적 조건으로서 개인내적 자원인 자기존중과 적극성이 약하거나 부족하다 보면 시도하지도 못하고 현실을 자기 탓이라 돌리게 된다. 그래서 연구대상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과 편중된 교우 관계 속에서만 지지적 관계를 형성한다.

### (3) 참여와 전환의 단계

참여와 전환의(자신의 입장수용) 단계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위 환경을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생활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실행한다. 지지적 관계, 개인내적 자원, 문화정체성의 중재적 조건에 의하여 중심현상인 위축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 현실직시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을 인정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참여자들은 수업에 열심히 임하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수업 후 과목 이해를 위해 질문을 하기도 한다. 또한 방과 후에는 보조 학습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억울함과 '주눅 들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을 많이 경험하면 맥락적 조건인 사회적 편견, 문화적 인식의 차이, 돌출상황이 부정적 요소로 작용되어 참았던 감정이 분노로 표출되고 돌출행동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특히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 대한 경험은 정체성 형성에 크게 작용한다. 비록 몸은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본국의 대중문화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동질집단과의 활발한 교우관계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와 비교하여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혼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화수용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 (4) 지속가능성의 단계

지속가능성의 단계(어울림)는 참여자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노력한 결과 억울함과 '주눅 들음'을 극복한 자신감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아실현에 이바지 한다. 그러나 혼돈과 부적응으로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경우는 불투명한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를 느껴서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정착을 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남게 된다.

### 4) 선택코딩 분석

선택코딩은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밝히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범주들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로서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를 설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서술적 문장을 만들고 경험의 유형화와 관계기술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였다.

#### (1) 경험의 유형화

경험의 유형화란 관계 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유형분석 과정의 첫 단계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상황관계를 정형화하고 핵심범주인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와 맥락적 조건인 '사회적 편견', '인식의 차이', '위기상황'과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했다(표 8 참조).

〈표 8〉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경험의 유형화

구분	핵심범주	사회적 편견	인식의 차이	위기상황
1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적음	긍정적	적음
2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적음	긍정적	많음
3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적음	부정적	적음
4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적음	부정적	많음
5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많음	긍정적	적음
6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많음	긍정적	많음
7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많음	부정적	적음
8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많음	부정적	많음

## (2) 경험의 유형화 관계 진술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와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진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로 8가지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 (3)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의 경험의 유형화와 관계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각 범주간의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인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유형을 각 관계별 경로에 따라 종합해본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인과적 조건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의 과정과 결합되면서 적극형, 우유부단형, 혼돈형으로 결과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가지 유형은 〈표 9〉와 같다.

〈표 9〉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 유형분석

구분	적극형	우유부단형	혼돈형
인과적조건	억울함 (적음, 일시적)	억울함 (많음, 지속적)	억울함 (많음, 지속적)
중심현상	주눅 들음 (적음, 일시적)	주눅 들음 (많음, 지속적)	주눅 들음 (많음, 지속적)
맥락적 조건	사회적 편견의 경험(적음)	사회적 편견의 경험 (많음)	사회적 편견의 경험 (많음)
	인식의 차이 (긍정적)	인식의 차이 (부정적)	인식의 차이 (부정적)

	위기상황 (적음, 일시적)	위기상황 (많음, 일시적)	위기상황 (많음, 지속적)
중재적 조건	개인내적자원 (의지 강함)	개인내적자원 (의지 약함)	개인내적자원 (의지 약함)
	지지적 환경 (많음, 강함)	지지적 환경 (적음, 약함)	지지적 환경 (적음, 약함)
	적극성 (강함, 긍정적)	적극성 (약함, 부정적)	적극성 (약함, 부정적)
작용/상호작용전 략	회 피 (일시적)	회 피 (지속적)	회 피 (지속적)
	현실직시 (적음, 능동적)	현실직시 (많음, 수동적)	현실직시 (많음, 수동적)
	노 력 (강함, 많음, 지속적)	노 력 (약함, 적음, 제한적)	노 력 (약함, 적음, 일시적)
결 과	적 응 (높음)	적 응 (높음)	적 응 (낮음)
	혼 돈 (약함)	혼 돈 (강함)	혼 돈 (강함)
	부적응 (투명, 밝음)	부적응 (불투명, 어두움)	부적응 (불투명, 어두움)

① 적극형

적극형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실적 처지에 대해 황당함과 억울함이 적었고 자신의 환경,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시선, 사회적 편견에 대한 경험도 적었으며 일시적으로 겪었다. 그리고 문화차이나 다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인 학교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주눅 들음이 일시적으로 지속되었지만 개인 내적자원인 의지가 강하고 지지적 관계가 많아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의붓아버지와 어머니의 문화 일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였다. 적극형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며 학업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높은 성취감을 가졌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여 적응으로 나아갔다.

② 우유부단형

우유부단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황당함과 억울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감정은 학교생활 적응에 장애가 되었다. 동반입국시에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비교할 때 또 다른 법률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참여자들을 주눅 들게 하였고 지지적 자원과의 관계를 약하게 했다. 또한 개인 내적 자원인 의지도 약하다보니 혼란스러울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문화 정체성의 혼란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면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유형은 위기상황에서도 혼자서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고 학업태도에 있어서도 겨우 수업을 따라갈 정도로 학교생활을 대충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 같으나 사후 적응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 ③ 혼란형

혼란형은 사회적 편견의 경험이 많고 지속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황당함이나 억울함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을 경험하여 한국문화 적응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지적 자원의 도움도 미흡하였고 황당함, 억울함, 위축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개인 내적 자원인 의지가 약했다. 중도입국 초기부터 차별, 왕따, 무시 등을 경험한 경우는 주위의 눈치를 보게 했고 자신감을 잃게 했으며 상황에 따라 거짓말, 폭력 등을 보이기도 했다. 학업성취도도 약했으며 언젠가는 어머니 나라로 돌아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혼란형은 일상적으로는 우유부단형과 비슷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상황이나 차별이 일어날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거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과정과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과정과 문제를 파악하여 학교 및 상담현장에 적절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근거자료를 통해 개방코딩에서 97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에서 중심현상의 원인인 인과적 조건은 '억울함'이었다. 중심현상은 '주눅 들음'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응하는 상황적 조건인 맥락적 조건은 사회적 편견, 인식의 차이, 위기상황이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중재하는 조건은 지지적 관계, 개인내적자원, 적극성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은 회피, 현실직시, 노력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 결과는 적응, 혼돈, 부적응이었다. 종합해보면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과정은 '주눅 들음에서 벗어나 적응하기'로 서술되는데, 다양한 조건이나 맥락과 결합하면서 적응유형은 적극형, 우유부단형, 혼란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이 학교에 적응하는 단계별 개입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와 담임교사가 중도입국청소년의 구성과 탐색의 단계에서 라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은 구성과 탐색의 단계(혼란과 두려움), 발견과 이해의 단계(시도해봄), 참여와 전환의 단계(자신의 입장수용),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성의 단계(어울림) 등을 거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구성/탐색단계에서 자신감 갖기, 정체성 확립,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하다. 이 과

정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교우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기도 한다. 이때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나 교사를 만나면, 긍정적 참여와 전환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한국문화의 차이를 알고 수용하고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환경을 부정하기 보다는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을 하면서 학교생활에서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의 단계별 민감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전문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유형별로 사회복지실천방식을 다변화시켜야 하겠다. 연구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유형은 적극형, 우유부단형, 혼란형 등으로 세 가지 유형이었다. 적극형은 억울함과 주눅 들음을 이겨내고 성취감을 느끼거나 또는 학습문제를 교사 또는 친구의 도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성장해 나가는 유형이다. 이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학습에서 많이 제공해주어야 하며 그런 체험이 성공의 열쇠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반면 우유부단형은 늘 억울함과 주눅 들음이 많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시간이 갈수록 적응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적고 주변의 지지적 관계를 활용하는 노력도 덜 하는 편이다. 문화적 차이에 늘 불편해하며 교류 관계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우유부단형에게는 학습관점에서 적극적인 교사의 개입과 지지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며 친구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다문화전문상담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혼란형은 억울함, 주눅 들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도 낮고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이다. 이 유형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 발견 및 회복이 있게 해 주어야 하며 교사의 적극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관계인 다문화전문상담사의 개입에 의하여 부모와 개인에게 가정 정체성, 개인정체성을 등을 알게 하고 이런 유형은 참여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 사항이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사회 체험교실이 운영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입국 전에 영사관 또는 NGO에 의해 단계별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입국 후에는 학교입학 전까지 한국어 언어능력 신장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고, 입학 후에는 학교생활에 맞는 체험교실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언어숙련도에 맞추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진행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언어능력 향상이 일어나고 이것은 자신감으로 승화되었다(장덕희·신효선, 2010; 조영달 외, 2006).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부정적 환경을 친화적 환경으로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심리적, 사회적 학습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넷째, 중도입국청소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어머니(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입국시 동반입국이 되지 않으며 차후 입양방법으로 입국된다. 입국된 후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누리는 법적 지위를 교육권과 건강권 외에는 동일하게 갖지 못한다(김미선, 2010). 정부의 정책안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만을 '한국인' 범주에 포함, 통합시키고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금명자 외, 2006; 이혜경, 2005). 현행 법률 체계안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

을 확립하는데 혼돈의 요소가 되고 있다(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향후 다문화적인 통합 관점에서 ‘한국인’에 대한 개념정립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 아빠와 새롭게 살게 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내 생활적응의 실상을 근거이론에 따라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된 청소년으로 다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숫자가 충분치 않아 전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풍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 1-26.
-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자료집』. (미간행자료집).
- 금명자·이영선·김무리·손재환·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 상담원·국가청소년 위원회.
- 김경자.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김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해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주. 2007. 『미국조기유학 청소년의 적응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은주. 2006. “차별과 동화: 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교육비평』 22: 214-234.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 신경림·김미영.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신지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녀와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대안모색”. 『인간연구』 12: 1-15.
- 이경화. 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6(4): 157-171.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장덕희·신효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79-102.

- 조영달·윤희원·박상철·최인영.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최은미. 2007. “이주이동의 학교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
- 한정에. 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 분석』.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학위논문.
-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2010.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 학지사.
- Berry, J.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46: 5-34.
- Gil, A., W. Vega, J. Dimas. 1994.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43-54.
- Hovey, J. and C. Magana.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3): 119-131.
- Levitt, P. and M. Waters. 2002. *The Changing Face of Home: The Transnational Lives of the Second Generation*. New York: Sage Foundation.
- Mitchell, M. and E. Salsbury. 1996. *Multicultural Education: An International Guide to Research, Policies and Program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Padgett, D.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New York: Sage Publication.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김수지(역). 2008. 『근거이론의 이해』. New York: Sage Publication.
- Suarez-Orozco, C. and M. Suarez-Orozco. 2002. *Children of Immig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d, A., S. Bochner, and A. Furnham.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New York: Routledge.
- Zhou, M. 1997. “Growing Up American: The Challenge Confronting Immigra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63-95.

##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Lee, Byung-Chul  
(University of Incheon)

Song, Da-Young  
(University of Incheon)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how to support school adapt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specifically the children who came to Incheon, Korea to live with new stepfather because of their mother's international marriag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seek for counter-measurements against the problems of their high probability of leaving and quitting school. Based on grounded theory in qualitative studies, the study was to analyze various categories and dimensions in school adaptation process among the elementary students.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related factors were involved in the school adaptation process, positively or negatively. Probing and speculat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the adapting process, the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ollowings. First, to extent to which the experiences of school adjustment among the multicultural youths we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other students. Second, how the youths responded to society and other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and modified their actions and attitudes. Third, how we can help the youths out of school maladjustment and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conclusion, policy suggestions are given to assist the struggles of the disadvantaged youth, who are under acculturative stress and adapting problems at the new country.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school adaptation, grounded theory, mal-adaptation

[논문 접수일 : 11. 06. 30, 심사일 : 11. 07. 18, 게재 확정일 : 11. 08. 05]